



주제발표 논문

■ 임헌만(백석대학교)

- 일차적 소명의 관점으로 보는
이차적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기독교상담



일차적 소명의 관점으로 보는 이차적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기독교상담

임 헌 만*

국문초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의미가 없고 불행한 이유를 직업에의 불만족에 둔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삶도 극복해 간다라는 주장을 하는 Viktor Frankl 로고테라피는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그 직업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가짐이 삶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한다. 본 소고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소명인 일차적 소명과 직업적 소명인 이차적 소명을 나누어서 직업의 의미를 살펴 보았다. 곧 직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 그리고 기독교 역사적 의미를 통해 직업은 단순히 재화를 벌어들이는 생업(job)이나 사업(business)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차적 소명(second vocation)으로서 이해해야하며 이 이차적 소명은 하나님이 그 직업을 통해 부르신 일차적 소명(first vocation)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그 의미가 회복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적 소명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곧 직업을 이차적 소명이 아닌 일차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장으로, 직업 상담은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이차적 소명으로 부르시는 직업을 분별하는 원리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직업의 의미와 실업(失業)이 가져오는 실업신경증 그리고 그 치유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참으로 직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도구로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적 직업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또한 그 직업을 통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일 것이다.

중심단어 : 직업, 소명, 빅터 프랭클, 로고테라피, 기독교상담

• 논문 투고일: 2009년 09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09년 10월 26일

• 게재 확정일: 2009년 11월 13일

* 백석대학교

I. 여는 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않고 별로 의미가 없는 이유를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에의 불만족에 둔다. 그러나 Viktor Frankl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충족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직업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직업적 노동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거나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상담의 예를 들었다:

한 여자 환자가 자기의 삶은 조금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건강이 나쁘다고 호소하였다. 그녀는 만일 자기가 만족하게 여길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말했다. 거기서 그 환자에게 개인이 가지는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이 문제라는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구체적인 직업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실존의 독자성을 형성하는 인격적인 것이 직업 활동 속에서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느냐가 문제이다.¹⁾

Frankl이 주장하듯 직업의 종류가 그 사람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그 사람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라면 곧 문제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갖게하는 직업 상담이야말로 유신론적 실존 심리치료 상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신론적 실존 심리 치료 상담은 결국 내담자가 힘들어하는 심리적 역동 자체를 분석하고 직면하게끔 하거나 여타 다른 심리치료 상담처럼 상한 마음등을 인지적으로 경험 혹은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실존적 깨달음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가져옴으로 치유하는 기독교 심리치료 상담이

1)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이현수 역, 『정신세계의 병리와 해부』(서울: 양영각, 1983), 128-129.

기 때문이다.²⁾

무엇보다 현대를 살아가는 비기독교인들은 물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직업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와 등급을 매기는 것이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자신의 직업에 따라 자신의 가치와 등급을 인식하여 우울증에 빠지거나 실존적 허무감에 빠지기도한다. 더욱이나 실직하거나 사회의 경제 고용 시장의 어려움등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게되는 정신적 문제가 가져오는 병폐는 여러모로 심각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논자는 기독교 상담³⁾의 관점에서 직업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 거하는 일차적 소명을 이루기 위한 이차적 소명의 관점으로 연구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직업으로 인해 오는 정신적 문제들에 대한 치유적 관점을 갖게하는데 있다.

II. 펴는 글

1. 기독교 관점에서 본 직업관

1) 어원적 직업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직업’을 ‘움직이다’라는 동사 ‘아-사- (*asah*)’에서 파생한 명사 ‘마아세- (*ma'aseh*)’ (창 46:33; 삼상 25:2)와 생활을 위한 생업의 ‘멜라-카-흐’ (욘 1:8) 그리고 삼하 20:1; 왕상 12:16; 대하 10:16; 사 58:14에서 표현된 ‘나할리- (*nachalah*)’는 [은사]를 의미하고, 거기서 [기업],

2) Bruce Litchfield and Nellie Litchfield, *Christian Counselling & Family Therapy*, 정동섭, 정성준 역,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서울: 예수전도단, 2002), 50-54; Raymond J. Corsini and Danny Wedding, *Current Psychotherapies*, 김정희 역, 『현대 심리치료』(서울: 학지사, 2004), 406-410.

3)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상담, 영혼육의 전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그리고 통찰 지향, 인지행동 지향, 경험 지향, 의약 지향등에 대한 종합적 절충주의 상담을 말한다. Litchfield, *Christian Counselling & Family Therapy*, 54.

[유업], [상속재산]을 의미하여 사용되었다. 또한 제비뽑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고-랄- (goral)’ 은 제비뽑아서(레 16:8,9,10; 민 26:55) 얻은 땅과 소유등을 뜻하여 다른 곳에서는 분깃(시 16:5)으로도 사용되었다.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에르가시아 (ergasia)’ 로 영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행 19:25) 생활의 수단으로서의 직업은 ‘테크네-(techne)’ 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행 18:3). 무엇보다 성경에서 ‘예배 드리는 행위’ (출 3:12; 10:26)를 표현하는데 사용된 단어 ‘에베드-(ebedh)’ 가 창 2:5; 4:2; 4:12; 출 5:18; 20:9등에서 ‘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본 소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직업을 단순히 재화를 버는 수단으로서의 일(job)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직업 (vocation)으로 봐야한다는데 성경적 어원의 근거가 되어 준다.

이는 곧 직업(職業)을 직위를 뜻하는 직(職)이라는 말과 생업을 의미하는 업(業)이라는 말의 합성어⁴⁾로 사용하는데서 오는 오해를 불식 시키고 직업은 곧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召命)으로서 천직(天職)이라는 본 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물론 직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의미로서의 직업 (business) 그리고 매일같이 일하는 일상의 작업적 의미의 직업 (job)이 있지만 직업을 이러한 소명 (vocation)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먹고사는 생업에 대한 의미로만 보거나 그 사람의 직분으로 보는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하면서도 직업에 따라 그 사람 자체의 가치가 평가되는 모순은 계속될 것이기에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하겠다. 또한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본 직업이라는 주제의 본 연구는 직업을 상실한 실업(失業)이나 은퇴이후에 겪는 정신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 더 나아가서는 교회내에서의 신앙적 삶과 사회내에서의 삶 곧 성속(聖俗)의 이분(二分)된 삶을 극복하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러지는 삶⁵⁾을 살아가는 신앙을 갖도록 도

4) 김동일·김원웅·이주향, 『현대인의 직업 윤리』(서울: 문음사, 1995), 35.

5)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움을 주는 연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

2) 성경적 직업관

비기독교인들은 물론 기독교인들조차도 노동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와 형벌로만 오해한다⁶⁾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노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Bill Hybels는 주장한다. 곧 노동은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이 결코 아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스스로 창조 사역을 하셨으며 계획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이 세상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 놀라운 성취감으로 좋아하셨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며 인간들은 즐겁고 의미있는 노동으로서 인생을 지낼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인간의 반역과 범죄 이후 노동의 성격이 다소 변질되어서 자연이 인간들의 노동을 어렵게 만들어 노동량을 증가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⁷⁾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사명을 가진 사역자로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신다.⁸⁾ 일반적으로 나라의 구성 요소는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다. 그런데 영토는 그곳에 누가 사는가 곧 국민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이며 국민은 곧 누구의 주권하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이기에 주권이 나라가 세워지는 근간이 된다. 곧 나라는 그 영토의 크기나 백성의 수에 있지 않고 그 나라를 주관하는 주권에 그 존재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말씀하신 것이

6)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 3:17).

7) 빌 하이벨스 외 12인, 『세상과 구별된 삶』 (서울: 청우, 2000), 22-24.

8)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6).

다.⁹⁾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직업(vocation)이 소명으로 주어졌다 (창 1:26; 28). 그러므로 아담은 창조된 이후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무위도식(無爲徒食)하며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수행해 나간 것이다.¹⁰⁾

곧 사람은 창조된 그 본래적 소명이, 일하도록 지어진 존재인 것이다. 이 직업에 대한 소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 (행 20:32; 26:18; 엡 1:11; 1:14; 1:18; 5:5; 골 1:12; 히 6:12; 17; 9:15; 뱀전 1:4)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이어가는 생업의 수단이 아닌 보다 근본적으로 일하는 속성을 가진 존재 자체의 의미인 것이다. 그러하므로 전도서 기자는 해아래 수고하는 인간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 1:2)라며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어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도 같다 (전 1:14)라고 인생의 결론을 말하면서도 전도서 여러 곳에서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수고하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¹¹⁾ 곧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지극한 최상의 복으로서 그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¹²⁾ 그러므로 죽음의 세계 또는 지옥을 의미하는 히

-
- 9)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 10)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 2:15);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창 2:19).
- 11)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전 2:24);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 3:13);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전 5:18).
- 12)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 3:22).

브리어 ‘스올-(sh-ol)’ 곧 음부(陰部)에는 일이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¹³⁾ 이와같이 ‘일’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일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쉼과 놀이는 반드시 일과 함께할 때에만 그 의미를 알 수 있기에 ‘재창조’라는 뜻을 내포한 레크레이션 (re-creation)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쉼과 놀이조차 또 다른 창작적 사역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일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는 생업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소명인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뤄져야한다. 그러하기에 일하기 위해 창조된 아담조차도 정작 창조된 그 다음날 곧 바로 일하는 것이 아닌 안식에 들어가게 하였던 것이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쉼’의 누림으로서 비로소 시작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일’ 자체에만 탐닉하고 빠지는 것은 마치 바벨탑을 짓는 헛된 노동이 되고 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탑을 지었던 노아의 자손들은 무지개까지 하늘에 걸어 가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것이라고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¹⁴⁾을 믿지 않고 물속에서 내수성이 강한 구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진흙대신 방수재인 역청으로 그 대 꼭대기가 하늘에 까지 닿는 높은 방수탑을 지었던 것이다. 곧 노아의 홍수때 온 지면에 창일하였던 물위로 흩어져 떠 다녔던 시체들을 보고 경험한 노아의 자손들은 구약에서 그 존재 자체를 대표하는 이름을 내어 스스로 구원하여 대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방수탑 위로 피신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던

13)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전 9:10).

14)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창 9:14-16).

것이다.¹⁵⁾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와같이 인간들이 그 주권을 가지고 주도하는 인본주의의 나라가 아닌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후 12장에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이다.¹⁶⁾ 그러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단언하신 것이며(요 15:5),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리라 (요 6:29).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직업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나 자신의 생계를 위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서 행하는 모든 사역인 것이다.

3) 기독교 직업관 역사

‘기독교’라 명칭함은 중세 로마 카톨릭의 왜곡되고 잘못된 구원의 교리에 반발하여 개혁된 프로테스탄트를 의미한다. 중세 교회는 직업관에 있어서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빠져서 영적이고 육적인것을 철저히 나누었다. 곧 육체는 악한 것이기에 육체로 하는 노동은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하는 필요악으로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직업의 귀천이 등급되어져서 나뉘지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육체적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일의 지나치게 거룩하게 차별하던 생각은 농민을 비롯한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며 생산직을 담당하는 일은 미천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던 정치인이나 군인의 직업은 고귀하며 가장 최고로 거룩한 일은 종교에 종사하던 사제직

15)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 11:3-4).

16)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반복하여 사용하던 동사 접미어는 “우리가~”(Let us)라는 3인칭 복수 접미어가 붙어 있음에 대조적으로 창세기 12:1-3에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I will)”이라는 1인칭 단수 접미어가 모든 동사에 붙어있어 하나님 나라는 결국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다.

으로 여겨져서 자연스럽게 직업에 귀천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세의 직업관에 반대하여 프로테스탄트의 첫 깃발을 올린 종교 개혁가 Martin Luther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등이 존귀하다라는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하기에 된 것이다. Luther는 직업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계승으로서 이해하였으며 수도사들이 종교적으로 고행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 일함으로 가지게되는 고통을 겪는 것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여 겪는 고통으로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고통에 연합해 나가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눅 9:23; 벰전 2:21). 이러한 Luther의 생각은 곧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로서 직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현존하시기에 내가 필요한 것을 이웃의 노동을 통해 얻을 때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으로 여겨야하며 또한 내가 이웃을 위해 노동하여 베풀 때에도 그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 25:31-46)¹⁷⁾

이와같은 Luther의 생각은 John Calvin에 이르러 더 구체적이 되었다. 곧 Calvin은 유용한(useful) 노동을 강조하였는데 누가복음 19:11-27의 ‘달란트’ 비유에 대한 주석에서 달란트를 영적인 은사와 은혜로 주해하던 종전의 해석을 거부하고 Calvin은 달란트를 매일의 노동과 직업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상업(trading)이라는 직업에 연결시킴으로써 은사들의 구체적인 성격을 강조하여 현대적 의미의 ‘달란트’ (talent)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하였다.

Andre Bieler는 『칼빈의 경제 윤리』에서 Calvin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없듯이 기독교인들이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야한다고 한다. 이 교제를 가능케 하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Calvin은 노동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¹⁸⁾

17) 방선기, 『Christian @Work』(서울: 도서출판 한세, 2000), 43-44.

18) Andre Bie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홍치모 역, 『칼빈의 경제윤리』(서울: 성광문화사, 1992), 79-84.

이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직업관을 성경적 직업관으로 주장하며 이랜드 기업의 사목으로 그리고 직장 사역 연구소장으로 '일하는 제자들'의 발행인 이자 주필로 직장 사역을 본인의 평생 소명으로 일하고 있는 방선기는 성경적 직업관의 원리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는 본 소고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키와도 같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후 5:17).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 . 대부분의 직업인들의 경우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직업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일하는 자세도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에 대한 창조 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여겨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게 되는 것이다 (골 3:23).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주의 일'이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하는 자세이다.¹⁹⁾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산다. 직업을 천직으로 보는 직업관은 다음 네 가지의 공통 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 모든 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직업은 자신에게는 물론 이웃에게도 이익이 된다. 둘째, 직업의 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일은 그 자체의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셋째, 천직은 어떤 연령이나 특정 집단의 사람 혹은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넷째, 천직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통하여 이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답을 스스로 발견해야한다.²⁰⁾

19) 방선기, 『Christian @Work』, 15.

20) Leslie Parrott and Les Parrott, *The Career Counselor*, 정태기 역, 『직업 상담-현대 기독교상담 시리즈 11권』(서울: 두란노, 1997), 23.

4) 오해된 소명적 직업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직업의 의미는 그 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그 직업을 수단으로하는 궁극적 목적 곧 돈을 벌기 위한 의미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재화를 버는 목적도 결국 자신의 이기적인 부의 축적과 사회적 지위의 상승등의 왜곡된 의미로 고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직업의 노동이 그 노동의 주체인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재화를 벌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직업의 노동을 위해 존재하는 모순적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목적에 위배하여 오히려 인간이 노동의 노예가 되어 심지어는 일중독증에 걸리게까지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모든 것을 일찍이 간파하신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고 경계하신 것이다.

직업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직업을 단순히 재화를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닌 일차적 소명으로써 이해하는 것이다. Os Guinness는 그의 책 *The Call* 에서 우리는 일을 하도록 (to do) 부르심을 받기 전에, 존재하도록 (to be)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부르심이야말로 우리의 일차적 소명이다. 이 일차적 소명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 일꾼²¹⁾으로서 다양한 직업과 삶의 역할들을 위해 부르시는 이차적 소명을 주셨다고 주장하며 이차적 소명은 일차적 소명을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당신의 일, 혹은 직업적 소명은 당신의 이차적 소명들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라는 일차적 소명과 불가피하게 관련
이 있다. 영어로 vocation (직업)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보카레’ (vocare)

21)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9).

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부르다' 라는 의미다. 당신의 직업적 소명은 그것이 보수가 주어지는 일이든, 가정에서의 일이든, 혹은 자원 활동이든 간에 세상에서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 . 따라서 우리가 가정주부나 법조인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차적 소명의 관점에서 적절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것들은 항상 이차적 일 뿐이다, 절대로 일차적 소명은 아니다. 그것들은 여러 '소명들'(callings)이지 '소명'(the calling)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답변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이차적 소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오직 일차적 소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그렇다.²²⁾

그와같이 이차적 소명인 직업을 일차적 소명으로 오해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신 단 한 가지의 직업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직업적 노동에 대하여 과연 자신의 노동이 하나님에 뜻하신 그 일인가를 의심하여 자신의 일차적 소명은 물론 이차적 소명에 마저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곧 Max Weber가 지적하듯이 '직업' 개념에는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중심교리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교리는 도덕적 계율을 '명령' 과 '권고' 로 나누는 가톨릭적 태도를 거부하고 신을 기쁘게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도승적 금욕주의를 통해 현세적 도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세적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현세적 의무는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곧 그의 직업이 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²³⁾ 그런데 이와같이 직업을 이차적 소명관이 아닌 일차적 소명관으로 오해하게 된데에는 종교 개혁자들의 직업에 대한 오해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곧 종교 개혁자들은 소명과 노동(일)과 직업에 대하여 혼동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20 "부르심을 받던 그 때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야"라는 성경 본문에 있는 부르심 (calling)을 자신들

22) Os Guinness, *The Call* (Nashville, TN.: Word, 1998), 31.

23)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박성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서울: 문예 출판사, 1995).

의 직업에 대한 소명으로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직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정과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노동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소명이 곧 직업을 의미하였기에 임금을 받지않는 자원봉사나 삶의 소소한 비임금 노동들은 평가절하되어 진짜 노동 혹은 진짜 소명의 관점에서 무시되었던 것이다.²⁴⁾ 그러하기에 여성들이 가정에서 가사를 하는 의미는 '살림 살이'라는 어휘에서 의미하듯 생명을 살리는 살이임에도 불구하고 소명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진짜 소명의 노동'으로는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일차적 소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이차적 소명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여 삶의 모든 것에서 활력을 잃게되는 것이다. 네브라스카 커니주립대학에서 의미요법의 전문 상담학 교수인 Paul R. Welter는 이와같이 직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상대하기 힘든 내담자로서 마치 눈에 덮여 젖어 있는 장작을 태우는 것 같다고 말하며 이러한 사람을 상담할 때에는 그 내담자가 잃어버린 삶의 의미가 직업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인지를 알아내야한다고 한다.²⁵⁾

그러므로 그와같이 직업을 얻은 이후 혹은 직업을 바꾼 이후 직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이전에 가능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이차적 소명인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직업에 대한 기독교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2.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원리

부르심(소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직자나 전문적인 기독교 사역자의 직분으로 부르심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24) 김재영, 『직업과 소명』(서울: IVP, 1989), 69-72.

25) Paul R. Welter, *Counseling and the Search for Meaning*, 정태기 역, 『기독교 상담과 의미 요법』(서울: 두란노, 2002), 201.

직업을 향하신 이차적 소명 또한 부르심인 것이다. 실제로 직업(vocation)이라는 말은 ‘부르심’을 의미하는 라틴어 *vocatio*에서 어원된 것이다. 부르심은 한 과정(process)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말로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다. 곧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인도하심인 것이다.²⁶⁾ 다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몇가지 원리이다. 일차적 소명과과의 관계 속에서 이차적 소명인 직업에 대하여 논술하기전에 이 원리들을 논하는 것은 반복되는 논지이나 직업에 대한 상담은 치유보다는 예방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1) Gary R. Collins의 원리

Collins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차적 소명인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원리 네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²⁷⁾

첫째,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이미 결정해놓은 계획들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복종하고 또한 그 인도하심을 원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길을 보여 주신다 (잠언 3:5-6; 로마서 12:1-2).

셋째,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정확한 공식은 없으나 성령님은 성경적 가르침과 일치되게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하며 성령님의 감화와 내재적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 우리는 이성을 사용하여 심리 테스트, 직업 분석, 직업 시장과 구직자의 특이성을 평가하기, 이력서 작성하기, 친구나 구직자를 잘 아는 사람들과 상담하기, 상담자와 상담하기와 기도등이 하나님의 뜻을 현명하게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

26) 김재영, 『직업과 소명』, 85-95.

27)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 a Comprehensive Guide*,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역,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서울: 두란노, 2008), 803-804.

넷째,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 안심해야 한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내담자들로 알게한다. 내담자들과 상담자들은 하나님의 때와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신다 (골 3:2-24). 분노나 걱정이 있을 때는 그 감정들을 인정하고 상담자와 상담하며 기도할 때 내담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빌4:11).

Collins는 직업 상담에 있어서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내담자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²⁸⁾

-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분야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 기술 강점, 능력, 관심, 경험, 신체적인 요구 사항 등의 관점에서 어떤 개인적 자질이 필요한가?
-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어디서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며, 비용은 얼마인가?
- 누구라도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교육, 나이, 성, 종교 혹은 다른 제한이 있는가? 법은 모든 기회는 공평해야 하며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직업의 현실은 다를 수 있다.
- 근무 환경은 어떠한가?
- 세세한 수익들을 포함해서 대략적인 초봉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은 얼마인가?
- 출장이나 초과 근무, 주말 근무, 지리적 이동 등 직장이 사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인가?
- 직장에서 윤리나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타협을 요구하는가?
- 개업이나 승진의 기회, 그 분야가 앞으로 계속 존재할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만족스러운 직장으로 옮기도록 준비시키는지 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에 대한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가?

28)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800.

- 이 직업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기독교인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가?

2) Garry Friesen의 네 가지 함정 원리와 Carney-Wells의 결정 과정 모델 원리

Friesen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네 가지 함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는데 이 함정들은 Clarke G. Carney와 Cinda F. Wells의 결정 과정 모델과 함께 볼때 더 명료해진다. Friesen이 서술한 기독교인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빠지기 쉬운 네 가지 함정은 다음과 같다: 29)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택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주장으로 현명치 못한 결정을 정당화 시킨다.

둘째,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한 없이 지연시킨다.

셋째, 두 가지 길 중에서 결정을 내리기 힘들 때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직업을 일부러 피한다.

넷째,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듯이 환경이 선택해 주는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

이 네 가지 함정들은 Carney-Wells의 2×2 모델과 비교하여 보면 보다 더 현명하게 직업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Carney와 Wells는 가로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세로 축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2 곱하기 2하여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29) G. Friesen and J. R. Maxson, *Decision Making and the Will of God: A Biblical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View* (Portland, OR.: Multnomah, 1980). 126.

Carney와 Wells의 결정 과정 모델

		자 신	
		인식하지 못함	인식함
환 경	인식하지 못함	혼란과 마비	직관적 결정
	인식함	의존적인 결정	계획된 결정

이 Carney와 Wells의 결정 과정 모델을 Friesen의 네가지 함정에 비추어 보면 기독교인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결정’이다.

(1) 혼란과 마비 모델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도 모르고 환경에 관한 정보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혼란케된다. Friesen은 기독교인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자질, 능력, 재능, 욕구, 기회등에 관하여 잘 알기 위하여 시간과 다양한 경험을 해야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주시지 않은 한 자신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2) 의존적인 결정 모델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 그리고 자질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적 정보나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 프리슨이 말하는 양털 판별법도 의존적인 결정이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표적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결정을 한없이 미루는 모델이다. Friesen은 환경은 결정을 내리는 틀이므로 지혜롭게 분별하되 환경이 순조롭게 열리거나 그 반대로 장애가 놓이는 것에

30) Friesen and Maxson, *Decision Making*, 335-55.

따라 일을 결정하지는 말라고 권고한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기회의 길이 열린다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거절해야하며 대통령이 되기까지 14번이나 그 앞길이 막혔지만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길이 막히면 뚫으면 그만이며 세상이 끝난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마침내 대통령이 된 Abraham Lincoln 대통령처럼 장애는 극복하라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길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오해하여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도 의존적인 결정의 모델이다. Frederick Buechner는 이와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희생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많은 기쁨을 느끼는 일이 자신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일이며 또한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단언한다.³¹⁾

(3) 직관적인 결정 모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는 모델이다. 이와같은 모델은 외부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내부의 감정 곧 순간적인 느낌이나 예감등을 바탕으로 내린다. 직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Douglas Sherman과 William D. Hendricks는 이와 같은 직관적인 결정의 모델에 대하여 우리들 내면에서 솟아 오르는 감정이나 느낌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움기에 우리는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한다.³²⁾

(4) 계획적인 결정 모델은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각 대안들과 각 대안에 따르는 보상과 치러야 할 대가를 이성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한 이 결정 방법은 각 대안들에 대한 자

31) Frederick Buechner, *Wishful Thinking: A Theological ABC* (New York: Harper and Row, 1973), 95.

32) D. Sherman and W. Hendricks. *Your Work Matters to God* (Colorado Springs: Nav Press, 1987). 142.

신의 감정 (직관)을 소중하게 여기고 전문인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견해 (의존)을 존중한다.

이상의 이론들을 Scott는 계획적인 결정 과정의 8단계 곧 인식, 자기 평가, 탐색, 통합, 헌신, 실행, 재평가, 그리고 재인식의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³³⁾ 인식 단계는 직업을 새롭게 갖거나 전환할 때 갖게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기대와 흥분등으로 인해 마음이 혼란해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인식해야한다. 안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뒤로 미루거나 중압감으로 인해 경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자기 평가 단계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하는지 평가해야한다. 탐색 단계에서는 실행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찾아낸다. 통합 단계에서는 찾아낸 대안들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한다. 주위 사람들의 견해, 재정적인 자원, 시간적인 여유등 중요한 변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결단 단계에서는 비록 선택한 직업이 100%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두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새 출발을 결단하는 단계이다. 결단에서 제외된 대안들을 모두 포기하는 단계이지만 혹시 실패하더라도 결단을 한 이후에 최선을 다하면 혹시 실패하더라도 크게 성장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실행 단계에서는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이다. 실행 단계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그다음에는 재평가 단계인데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정보와 경험들을 계속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재인식의 단계는 또 다시 직업을 바꿔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불안과 중압감이 커져서 다시 직업 결정 8단계를 차례대로 다시 밟게된다. 그러나 이전에 그대로 밟는 것이 아니고 한차원 높은 원을 그리면서 상승적인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어떤 단계는 매우 쉬워서 쉽게 통과할 수도 있다.

33) C. Carney and C. Wells, *Discover and Career within You*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991). 23.

3) 나침반 원리

Guinness의 *The Call* 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자신의 소명을 찾게해주는 책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소명 찾기』를 저술한 Kevin Brennfleck와 Kay Marie Brennfleck 부부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과 관계없이 나침반이 진북을 가리키듯이 직업적 소명을 발견하게해주는 나침반 같은 영원한 세 가지 성경적 원리를 말한다.

(1) 나침반 원리 1: 일차적 소명을 우선적으로 따르라

Brennfleck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모습의 자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며 우리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일차적 소명을 따르라고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면,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키고 능력을 부여하신다. . . 직업적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데 재정적인 염려가 큰 방해가 된다. . .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한한 자원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차적 소명을 우선적으로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 가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두려움과 마음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 소명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임을 믿는다.³⁴⁾

(2) 나침반 원리 2: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데 은사를 사용하라

Elizabeth O' Cornor의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당신의 존재에 쓰여 있

34) Kevin Brennfleck and Kay Marie Brennfleck, *Live Your Calling*, 강선규 역,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소명찾기』(서울: IVP, 2006), 35-36.

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 자신의 은사를 분별할 때 우리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과 Buechner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원칙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일은 자신이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 만나는 자리라는 말을 인용하며 저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당신의 큰 즐거움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자리다”라고 주장한다.³⁵⁾ 곧 자신이 어떤 일을 즐겨위는 하나 그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되거나 반대로 사람들은 그 일을 요구하나 자기 자신이 그일로 인해서 지루함을 느끼거나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일이 곧 하나님이 부르신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이다. Brennfleck은 이 둘째 나침반의 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열의 (enthusiasm)라는 영어 단어는 ‘...안에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en 과 ‘신’을 의미하는 theos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설계가 세상의 필요와 결합될 때 열의를 느낀다. 특별한 필요를 채우는 것에 열의를 느끼는 것은, 진정한 당신을 보여주는 그리고 당신의 직업적 소명을 보여 주는 중요한 척도일 수 있다.³⁶⁾

(3) 나침반 원리 3: 은사에 대해 적극적인 청지기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등을 맡겨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책임있게 사용해야한다라며 Brennfleck은 우리 자신의 은사에 대한 청지기로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업 적합성’의 다섯 가지 수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직업 적합성의 가장 낮은 수준 1의 일은 자신의 일을 그저 ‘일거리’로서 급료를 받는 수준의 일로서 급료는 받으나 즐거움이나 만족감은 거의

35) Brennfleck, *Live Your Calling*, 37.

36) Brennfleck, *Live Your Calling*, 38.

없는 수준을 말한다. 수준 2는 약간은 흥미있는 '괜찮은'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멈춰있다. 어느 정도 불만을 갖기도 하지만, 변화를 일으키고 싶을 만큼 불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직업 적합성 수준 3은 여러 해 동안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즐거움'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그 일에서 경쟁력을 획득하고 나면, 좀더 의미있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진다. 수준 4는 '의미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기여하고 있거나 무엇인가를 환원하고 있다고 느낀다. 직업 적합성 수준 5는 '통합'이다. . .일은 그 사람의 존재를 표현해준다. 그들의 독특한 목적은 일 가운데서 선명하게 드러나며, 그들의 인격적 정체성은 일의 정체성과 통합되어 있다. 수준 5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더 나은 기회와 전문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선택을 해 나간다.

이와같이 다양한 원리의 방법으로 결정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직업 곧 소명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이해는 긍정적인 면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 일차적 소명의 부재로 인한 직업의 정신적 병폐를 살펴 보기 전에 직업을 소명으로 보는 프로테스탄트의 직업관의 부정적인 일면을 살펴 보고자한다.

4) 기독교 직업관에 대한 비판적 질문과 대답

프로테스탄트의 소명적 직업관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David Meakin은 『인간과 노동-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문학과 문화』라는 책에서 문학을 넘어서 정치학적, 사회학적, 철학적인 문제까지 포함하여 비판하였다.³⁷⁾ Meakin은 주로 전산업화 시대와 산업화 시대를 비교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를 비판하였다. 프로테스탄트적 직업관은 신이 인간을 위해 계획한 노동, 곧 직업은 신성한 것이기에 게으름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악

37) David Meakin, *Man and Work*, 유동하 역, 『인간과 노동-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문학과 문화』(서울: 한길사, 1982), 3.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³⁸⁾ 그러나 Meakin은 프로테스탄트의 이러한 소명적 직업관은 의무적이고 도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노동이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기능 곧 자기 실현 및 현실과의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서 창조성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한하였다고 비판한다. 둘째, Meakin은 현대의 자동화 기술 시대에서 인간의 노동이 평가절하되고 있다라고 비판한다. 곧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자동화 기술 시대의 직업은 직업에의 만족감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현대의 많은 직업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기계를 도구로 하기에 전산업화 시대에 자연적 환경에서 인간이 사용하던 도구의 개념이 변질되어서 오히려 기계가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며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라고 비판한다. 넷째로, Meakin은 노동의 분화로 인하여 직업 자체에서 얻는 생산의 기쁨과 보람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소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많은 보수를 받는 수단으로서 노동을 하기에 인간은 노동의 의미에서 소외된다고 한다. 결국 Meakin은 전산업 시대에 있어서 노동은 일하는 그 자체가 예술과 종교 그리고 경제의 모든 것을 통해 얻는 종합적 만족을 얻었는데 현대에는 그저 자신의 소비를 위해 창조하는 곧 전산업 시대의 창조적 관점에서의 직업이 소비적 관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³⁹⁾

Meakin의 프로테스탄트 직업관에 대한 비판은 일견 합리적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Meakin은 노동을 인간의 창조적인 행위로 보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곧 노동은 창조적인 행위가 아니라 창조자되신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청지기로서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창 2:8)라는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인간의 노동은 청지기로서의 소명이지 노동 자체를 통한 창조적 행위자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논자의 논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동의 의미를 말씀하신 여러 비유에서도 명백히 보여진다.⁴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란트의 비유나 포도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

38) Meakin, *Man and Work*, 12.

39) Meakin, *Man and Work*, 12-28.

40) 마 25:14-30; 마 20:1-16; 마 21:28-30; 마 21:33-41; 막 12:1-9; 눅 13:6-9; 눅 20:9-16.

듯이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마련하여 주신 창조의 한도 내에서 그것을 가꾸고 지키는 사역이지 창조의 사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차적 소명의 발견으로 인한 이차적 소명의 발견으로서 직업의 의미를 찾아야지 Meakin의 주장처럼 직업 자체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나 보람을 찾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적 직업관의 관점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다.

3. 직업에 대한 상담적 관점

지금까지 논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직업의 의미와 하나님의 부르심인 이차적 소명으로서 직업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직업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단순히 재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을 넘어서 직업 그 자체가 우리의 정신 세계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Brennfleck이 서술한 직업 적합성 5의 수준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들은 갈망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Abraham H. Maslow의 욕구 위계 이론이 주장하듯⁴¹⁾ 기독교인들만이 아닌 모든 인간들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실현 욕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논자는 상담적 관점으로 직업이 정신 세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술하겠다.

직업의 영향력은 결코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보존해가는 생계에의 수단으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신적인 부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직업이 정신 세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로고테라피(Logotherapy)에서 논증하는 '노동의 의미'를 기독교 상담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41) Maslow의 욕구 위계 이론은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 상위 욕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되는데 하위 욕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의 위계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과 소속 욕구, 자존 욕구 그리고 지적으로 인지하는 욕구와 심미적 욕구가 포함된 최상위 욕구인 자아 실현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이성진·박성수, 『교육 심리학』(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5), 115-116.

1) 기독교 상담의 관점으로 보는 로고테라피 (Logotherapy)

기독교 심리치료 정신학의 대부라 불리는 Kierkegaard의 실존주의는,⁴²⁾ Freud 그리고 Adler와 함께 Vienna의 3대 심리학계 학파를 형성하고 있는 Frankl의 유신론적 실존 심리 치료학인 로고테라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상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심리학의 이론들을 Charles R. Darwin의 진화론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은 Freud의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이론들을 Frankl은 준엄하고 신랄하게 비판한다.⁴³⁾ 곧 인간은 영적인 실존의 존재로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 프로이드가 주장하듯이 그렇게 성적(性的) 충동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심리 분석학의 관점으로 보면 자아는 궁극적으로는 욕동의 장난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프로이트 자신이 말했듯이 자아는 그 자신의 집에서조차 주인이 아닙니다. . . 심리 분석은 사람을 욕동이 생기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기계적 존재로 봅니다.

실존 분석은 심리 분석과 대조되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존 분석은 더 이상 인간이 정신이라는 도구를 자동으로 실현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존재를 실현하는 존재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영적 존재'란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을 뜻합니다.⁴⁴⁾

로고테라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신앙과 달리 정신적인 건강을 목표로 삶의 의미를 상실한 내담자를 심리치료를 하며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게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42) 키에르 케고르는 현대인이 군중속에 파묻히어 수평화되고 자유와 결단과 책임감을 즉 자기를 상실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외이며 이 소외를 내면적으로 파악하면 불안이다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현대는 불안의 시대라고한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이다. 안병욱, 『키엘케고르』(서울: 지문각, 1967), 17.

43) Viktor E.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7), 130-164.

44) Viktor E. Frankl, *The Unconscious God*, 임현만 역, 『심리치료학과 신학의 만남-무의식의 하나님』(서울: 그리스심, 2006), 24-25.

의 만남(encounter)를 가져온다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무의식에 실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들을 통렬히 비판한다: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은 무의식에서 하나님과 대단히 개인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비인간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Carl G. Jung은 커다란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는 무의식의 하나님을 독자적이고 존재론적인 종교의 자리에 놓지 않고 충동과 본능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 . 영적 무의식은 심리학상의 존재라기 보다는 영적 존재에 속합니다. 그러나 용은 이 사실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종교의 원형이란 '어떤 방식으로 뇌와 연결되어 있는 정신의 구조적 특성 혹은 상태의 특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썼습니다.⁴⁵⁾

이와같이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영혼의 존재와 영향력에 대하여 기독교 로고테라피스트인 Donald F. Tweedie는 기독교 내담자는 가급적 기독교 상담자를 찾아가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한다:

사람이 영혼육 3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일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라면, 그렇다면 누군가가 자신의 차에 비기독교인의 기계적 서비스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만일 내가 믿는 것처럼, 사람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연합체로서 모든 카운슬링 관계가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비 기독교인을 추천하는 일은 영과 관련한 문제가 된다.⁴⁶⁾

이와같이 로고테라피는 기독교 상담학은 아니지만 기독교 상담적 관점으로 '직업'에 대한 고찰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45) Frankl, *The Unconscious God*, 88.

46) Jr., Donald F. Tweedie, *Logotherapy and the Christian Faith*, 임현만 역, 『기독교상담적 로고테라피 입문』(서울: 그리스, 2003), 212.

사람들이 직업을 갖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행복'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Frankl은 행복을 목적으로 추구할 때 행복은 구해지지 않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얻어지는 부상(副賞)과도 같다고 하며 오히려 단순한 쾌락이나 행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삶은 무의미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⁴⁷⁾ 삶의 의미는 삶의 3가지 가치를 발견할 때 얻어진다 그런데 3가지 가치 가운데 이 소고에서 논술하고 있는 '직업'은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발견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창작적 가치 (creative value)에 속한다.⁴⁸⁾

2) 로고테라피 관점으로 보는 직업

Frankl은 직업에 대하여 어떤 일정한 직업만이 인간에게 가치 충족의 가능성을 부여 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직업의 종류 자체가 아니라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 가짐에서 그 직업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Frankl의 주장은 이차적 소명의 직업에 우선하는 일차적 소명 곧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Frankl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담자들을 직업외의 다른 곳에서 곧 사적인 생활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실존의 이유를 찾아낼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 충족의 영역으로서 직업 노동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 관계는 지금의 지배적 노동 조건 하에서는 점점 왜곡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돌아

47) Viktor E. Frankl,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이봉수 역, 『심리요법과 현대인』 (서울: 분도출판사, 1983), 15.

48) 세 가지 가치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인 창작적 가치, 자신과 관계한 사람이나 어떠한 것을 경험하는데 삶의 가치를 두는 경험적 가치 (experiential value),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이라 할지라도 의연한 태도로 고통에의 의미를 맞이하는 태도적 가치 (attitudinal value)를 말한다.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117-125.

가는 벨트와 같이 같은 작업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된 다는 것. . .우리는 이 노동에 너무 지쳐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는 더 보람있는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과 같이 침대 위에 벌떡 들어누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업가 자신도 한가한 자유시간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인간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수단은 아니다. 이 정도가 심해지면 그는 재물획득 이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며 예술도, 스포츠도 전혀 모른다.⁴⁹⁾

Frankl은 失業者(실업자)의 경우에는 실업 신경증(失業神經症)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증상으로는 우울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자발성을 상실하여 점차 모든 것에 관심을 상실하는 무감동과 무관심이라고 말한다. 또한 실업의 공허감은 곧 내적 공허감과 의식의 공허감으로 경험하게 되어 신경증의 온상이 된다. 무감동은 단순히 심리적인 공허만이 아니라 영양부족의 결과로 신체적 증상형태의 수반현상도 동반하며 때로는 일반 신경증 증상과 같이 자살에 대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이미 존재하던 신경증이 실업에 의해서 악화되거나 재발된 것이다. 실업증 환자에게 실업은 단순히 직업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실패를 변명해주는 고마운 수단이 되기도 한다.⁵⁰⁾

실업신경증 환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해주며, 사회적 원인으로 취직을 시켜준다.⁵¹⁾ 그러나 실업신경증은 다른 모든 신경증 증후와 같이 실존의 양상이며 정신적 태도, 실존적 결단에 따라 치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업 신경증이 운명이 아닌것은 실업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을 하고도 정신적으로 쾌활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모임이나 자원 단체 혹은 국민 도서관의 무급 협조의 일등을 하거나 동료들과 토론하기, 운동하기, 음악듣기, 독서하기 등의 일을 하며 남아 돌아가는 시간들을 의미

49)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130.

50)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130-132.

51)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135.

있게 형성하는 사람들이다.⁵²⁾

실업과 반대로 직업 생활에 있어서 신경증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 곧 일중독자가 되어 내담자는 생활 전체로부터 직업 생활 속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그의 증상은 휴일같은때에 드러난다. 곧 비생산적 광인(狂人)의 모습이 드러나서 무목적성, 무의미성 및 실존의 허무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이 없을 때 스포츠나 예술 같은 것으로 미친듯이 몰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술도 신경증적으로 남용이 된다. 참된 예술이나 그의 체험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지만 신경증적으로 오용된 예술은 인간을 유리시키고 마취시킨다. 어떤 사람은 존재의 허무라는 불유쾌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릴있는 범죄 소설을 탐독하거나 영화를 보지만 결국 신경증 환자는 거기에서 그의 허구적 ‘히로인’ 과 동일시 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점점 더 강한 자극의 행위를 구하다가 자살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로고테라피적 관점으로 보는 직업 노동의 의미는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혹은 실직신경증세를 가졌는가등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실존의 독특하고 인격적인 요소들이 일 속에서 어떻게 표출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⁵³⁾ 특히 로고테라피에서 주장하듯 어느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창작적 가치의 삶 곧 직업을 통한 삶의 가치를 가진다면 그 직업을 하나의 소명 곧 자신의 천직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⁵⁴⁾ 특히 실직신경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증세는 생에 대한 단순한 위축이 아니라 냉담(Apathy)인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창작적 가치가 되는 곧 직업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 자체에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도록 한다.

52)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133.

53) Donald F. Tweedie, *Logotherap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2), 135.

54)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137.

III. 닫는 글

직업(職業)은 그 어휘에서 보여주듯이 직위(職位)와 생업(生業)의 의미로서 주로 사용되기에 직업에 따라 타인은 물론 자신에 대하여 귀천의 존재로 보는 병폐가 있다. 그뿐 아니라 직업에 따라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직업을 잃은 실직자들은 삶의 모든 것에 실패한 사람들로 소위 실직신경증을 앓기도 한다. 논자는 직업을 소명(vocation)으로 볼 것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였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의 회복을 통한 자기 존재(being)에의 일차적 소명은 이차적 소명인 직업에의 노동(doing)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 논자는 직업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지 않으면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조차 직업을 하나님 나라의 지상 성취의 수단이나 자기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재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여 직업에 노예가 되거나 직업을 잃은 이후에 오는 실직 신경증이나 일중독증 등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노동과 직업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인간 존재의 시작이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대리 통치자로서의 소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본 논문에서 논자는 역사적으로 직업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며 일차적 소명에 근간하여 불림받은 이차적 소명으로서 곧 천직으로서 직업의 의미를 살펴 보았다. 동시에 그러한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트적인 이해의 문제점도 살펴 보았다. 소명적 직업관에 대한 오해들도 함께 보았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직업 상담에 있어서 예방이 치유보다 우선시되어야 겠기에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몇몇 원리들을 연구하였다. 또한 기독교 직업관에 대한 Meakin의 주장 및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유신론적 실존주의 상담학인 로고테라피를 통하여 기독교 상담의 관점으로 직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적 직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자원적인 소명으로 응답하는 이차적 소명이다. 로고테라피의 창안자인 Frankl이 말하듯이 직업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 참고문헌 】

- 김동일, 김원웅, 이주향. 『현대인의 직업 윤리』. 서울: 문음사, 1995.
- 김재영. 『직업과 소명』. 서울: IVP, 1989.
- 방선기. 『Christian @Work』. 서울: 도서출판 한세, 2000.
- 빌 하이벨스 외 12인. 『세상과 구별된 삶』. 서울: 청우, 2000.
- 안병욱. 『키엘케고르』. 서울: 지문각, 1967.
- 이성진, 박성수. 『교육 심리학』.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5.
- Bieler, Andre.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홍치모 역. 『칼빈의 경제 윤리』. 서울: 성광문화사.
- Beuchner, Frederik. *Wishful Thinking: A Theological ABC*. New York: Harper and Row, 1973.
- Brennfleck, Kevin. and Brennfleck, Kay Marie. *Live Your Calling*. 강선규 역.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소명찾기』. 서울: IVP, 2006.
- Carney, C. and Wells, C. *Discover and Career within You*.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991.
- Collins, Gary R. *Christian Counseling : a Comprehensive Guide*.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역.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 2008.
- Corsini, Raymond J. and Weddking, Danny. *Current Psychotherapies*, 김정희 역. 『현대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04.
- Frankl, Viktor E.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7.
- Frankl, Viktor E. *The Doctor and the Soul*. 이현수 역. 『정신세계의 병리와 해부』. 서울: 양영각, 1983.
- Frankl, Viktor E.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이봉수 역. 『심리요법과 현대인』. 서울: 분도출판사, 1983.
- Frankl, Viktor E. *The Unconscious God*. 임현만 역. 『심리치료학과 신학의 만남-무의식의 하나님』. 서울: 그리심, 2006.
- Friesen, Garry and Maxson, J. R. *Decision Making and the Will of God: A Biblical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View*. Portland, OR.: Multnomah, 1980.
- Guinness, Os. *The Call*. Nashville, TN.: Word, 1998.
- Parrott, Leslie. and Parrott, Les. *The Career Counselor*. 정태기 역. 『직업 상담

- 현대 기독교상담 시리즈 11권』. 서울: 두란노, 1997.
- Litchfield, Bruce and Litchfield, Nellie *Christian Counselling & Family Therapy*. 정동섭 정성준 역.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서울: 예수전도단, 2002.
- Sherman, Douglas. and Hendricks, William. *Your Work Matters to God*. Colorado Springs: Nav Press, 1987.
- Tweedie, Jr., Donald F. *Logotherapy and the Christian Faith*. 임현만 역. 『기독교 상담적 로고테라피 입문』. 서울: 그리심, 2003.
- Tweedie, Jr., Donald F. *Logotherap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2.
-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박성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문예 출판사, 1995.
- Welter, Paul R. *Counseling and the Search for Meaning*. 정태기 역. 『기독교 상담과 의미 요법』. 서울: 두란노, 2002.

【 Abstract 】

The First Vocation's Perspective on the Second Vocation's
Perspective towards Job and Christian Counseling

Hun Man Im
Baek-Suk University

Many people believe that the reason their lives seem meaningless and unhappy is due to their dissatisfaction of jobs. But according to Viktor Frankl's logotherapy which states that a person who knows the meaning to their life can overcome any hardships in life, it is not the type of work that brings happiness, meaning and value to one's life, but the way a person sets his mental attitude toward his or her job.

This article, with a Christian viewpoint, explores the meaning of work by dividing the relational vocation with God as the first vocation and job-related vocation as the second.

Thus through the etymologic, biblical, and Christian-historic meaning of the word "job", one must understand the meaning of a job not simply as something that brings in wealth, but as a second vocation of calling from God; and that this second vocation would be able to recover its true meaning through the calling of the first vocation from God, or in other words through the restoration of a relationship with Him.

But this article also indicates a problem of the protestant viewpoint of vocation as understanding a job not as a second but first vocation. Secondly, since in career counseling prevention is actually important, the article depicts about the principles distinguishing the jobs God calls as second vocation. Lastly, through the viewpoint of Christian counseling, the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of job and the treatment of unemployment neurosis caused by unemployment.

Truly a job is a vocation given by God as a tool for making this world fit for the coming of Kingdom of God. By recognizing wisely the calling of a vocational job from God and by rejoicing and being thankful through that job would be the way of life to return glory to the living God.

Key words: job, vocation, Viktor Frankl, logotherapy, Christian counseling

